

2024
Vol.07

TALK²

[특투]

Talk to each other. Exchange ideas. Stay connected.

CSG Magazine

창간 1주년
특집호

CSG

Contents

The Spiritual Leader,

세상을 읽다

찰나에 담긴 깊은 통찰	4
OUTBREAK 정신을 넘어	

The AceMaker

창신인, 에이스메이커들의 이야기

창신의 한 문장	9
감사 한 문장	
특부 [TALK ² + Interview]	12
창간 특집 신발 개발에 진심인 사람들	
CEO 두줄 노트	18
Business Agility Matters	
Special Page	20
창간 특집 특투와 함께 한 1년	

Manufuturing

창신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MX Designer	23
생산기술본부	
CSG News Pick (#창_뉴_픽)	28
#Development #WoW #C2.0	
Advertisement	37
봉사 동호회 / 나눔	
Lean 단상	38
37호 이립 불혹	
Trend Catcher	40
News Clipping 73호	

The Spiritual Leader, 세상을 읽다

찰나에 담긴 회장님의 깊은 통찰



The Spiritual Leader, 세상을 읽다

찰나, 한 장에 담다



1981년 12월 10일, 대신교역으로 시작한 창신은 올해로 창립 43주년이 되었다. 위기를 혁신으로, 좌절을 도전으로 극복해온 지난 43년의 역사 속에서 평생 잊지 못할 제품이 있다. 창신에서 1987년 개발한 최초의 나이키 신발이자, 신발 제조업체로서 창신의 시작을 알린 OUTBREAK 모델이다. 타 업체들 모두가 기피하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모델이었지만, 어려움은 곧 기회가 된다. 남들이 개발하기 싫어하는 모델을 실패의 두려움에 맞서 용감히 도전했고, 이 정신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창신을 이끌어 줄 변치 않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시작과 끝은 공존한다.

창신에게 12월은 한 해 한 해 새로운 역사를 쌓아가는 시작점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12월, 다가올 새해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긍정의 에너지가

창신만의 스피릿으로 충전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The AceMaker

창신인, 에이스메이커들의 이야기

The AceMaker

The AceMaker | 창신의 한 문장

창신의 한 문장

전 구성원의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창신에 대한 생각과 가치를 한 문장으로 나눕니다

함께 만든 1년의 여정 '감사 한 문장'

입사 1년차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힘이 되어 준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감사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낮선 환경 속에서도 힘이 되어주고, 따뜻한 배려로 곁을 지켜준 동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공유합니다.

모든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낸 나의 첫 번째 한 해



함께 만든 1년의 여정, '감사 한 문장'

2024년, 감사로 빛어진 순간들



"혼자 감당하기 힘든 업무로 지칠 때, 선배가 먼저 손 내밀어 도와준 그 순간이 기억에 남아요"

팀원들 덕분에 1년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Security 팀, 정말 감사합니다.

Security팀 김동호 사원

"바깥바람이 필요하던 날, 커피 한 잔 건네며 쉬어가자고 해준 게 참 고마웠어요"

팀원들 덕분에 업무에서도 큰 동기부여를 받고 있어요. 저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동료가 되고 싶습니다.

Digital PCC팀 김재은 사원



"출장에서 처음 만난 주재원 동료들이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줬던 순간,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입사 초, 낯선 해외 출장에서 잔뜩 긴장했던 저에게 따뜻한 격려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덕분에 무사히 출장을 마치고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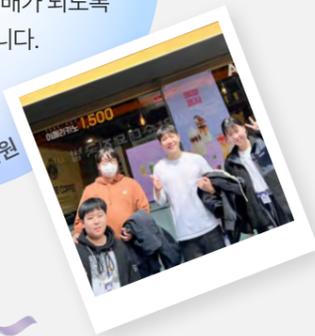
HS팀 이상호 사원



"발표 후 선배들이 보내준 칭찬 메시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Digital PCC팀, 항상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에 꼭 필요한 후배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Digital PCC 탁도영 사원



"어려운 문제로 막막할 때,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준 팀원들 덕분에 든든했어요"

ERP팀 오세종 대리

함께하는 매 순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낯선 업무를 친절하게 알려준 덕분에 긴장도 줄어들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재무회계/세무팀 박성민 사원

첫 직장이라 모든 게 낯설고 실수도 많았지만, 늘 따뜻하게 감싸주신 팀원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 해내겠습니다!



"회사 생활은 괜찮냐고 먼저 물어봐준 그 따뜻한 마음이 큰 위로였어요"

재무회계/세무팀 김선희 사원

지역 선배를 비롯한 팀원들께, 아무것도 모르고 입사한 저를 많이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커리어를 믿고 응원해준 덕분에 더 나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요"

자금팀 황원오 과장

창신에서의 초반 적응을 도와주신 자금팀 덕분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입사 첫날 축하해주고, 따뜻하게 이끌어준 동료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자금팀 김지안 사원

따뜻한 지도와 배려 덕분에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팀에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엔 당연한 거야라는 격려 덕분에 긴장 대신 용기를 얻었어요"

Digital SCP팀 김세민 사원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답답해하지 않고 늘 친절하게 대해 준 팀원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긴장을 쉽게 하는 성격인데도 팀원들의 따뜻함 덕분에 1년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첫 프레젠테이션 준비 때 연습 상대가 되어준 선배가 큰 힘이 됐어요"

Digital SCP팀 김요나 사원

함께 일하며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팀을 만들어가는 데 힘이 되고 싶습니다.



"더 나은 방법을 알려주며 아낌없이 조언해준 선배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어요"

원가회계팀 임지민 사원

많은 도움과 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부 [TALK² + Interview]

창신 에이스들의 성장 스토리와 도전을 집중 조명합니다



생성형 AI, ChatGPT로 제작한 이미지

창간 특집

신발 개발에 대한 진심으로 미래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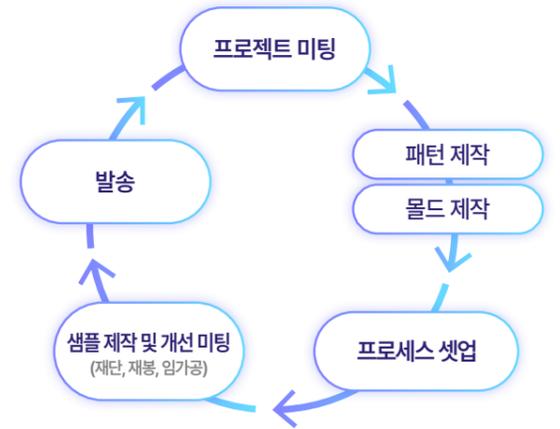


해내고야 마는, 신발을 향한 멈추지 않는 열정!

글로벌 신발 제조 기업 창신은 끊임없는 혁신과 전문성을 통해 신발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 사보 TALK² 창간 1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특집호에서는 창신의 신발 개발 여정을 따라가며, 창의성과 기술력의 완벽한 조화가 어떻게 탁월한 제품을 탄생시키는지 소개한다. 창신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신발 개발 과정! 부산시 공식 캐릭터 '부기(부산갈매기)'를 위한 '380mm 부기 신발 프로젝트'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자 한다. 380mm라는 전례 없는 크기의 신발 제작이라는 흥미로운 도전을 통해 창신이 어떻게 기존의 한계를 넘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신발 개발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와 열정이 신발 산업에서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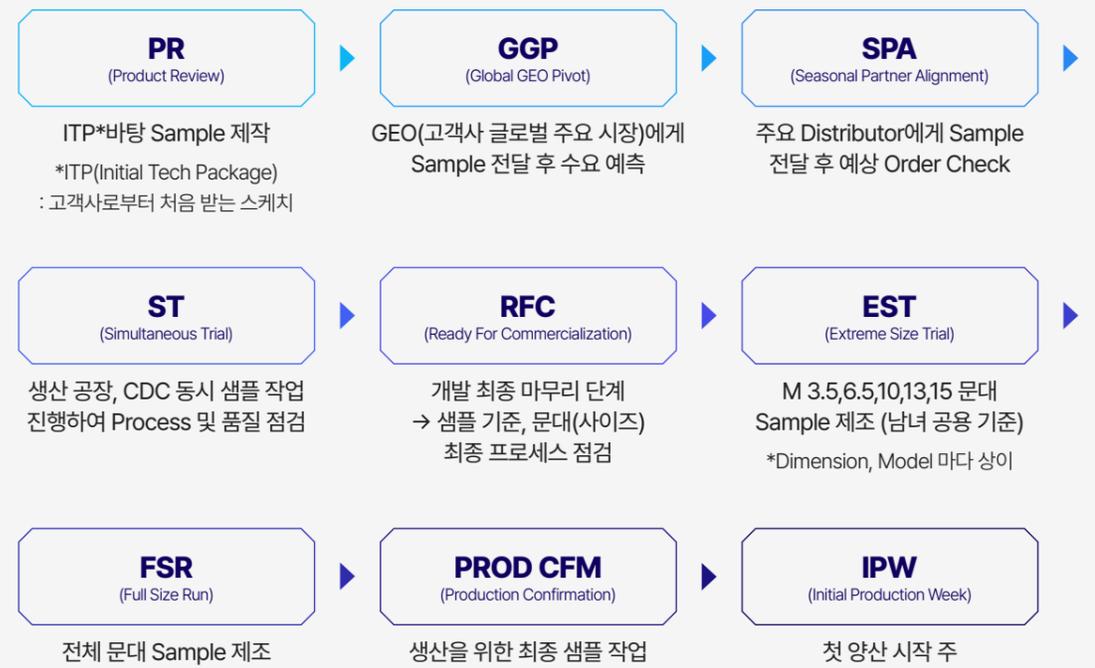
신발 개발, 그 이상의 여정 한 켤레의 신발이 탄생하기까지

신발 개발은 단순히 디자인과 생산을 넘어 혁신, 기술, 창의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이 여정은 프로젝트의 방향을 설정하는 초기 미팅에서 시작되며, 패턴 제작과 몰드 제작을 통해 신발의 형태와 구조를 구체화한다. 성능과 안정성을 고려해 개발된 데이터는 프로세스 셋업으로 이어지고, 이후 샘플 제작(재단, 재봉, 임가공 등) 단계로 나아간다. 완성된 샘플은 개선 미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되며, 최소 8차례 이상의 엄격한 테스트와 검토를 거친다. 이렇게 1년에서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정교한 과정을 통해 탄생한 신발은 마침내 시장에 선보이게 된다. 수많은 전문가의 열정과 노력의 결정체인 신발 개발의 여정, 지금 만나보자.



▲ 샘플 제작을 위해 필요한 개발 프로세스

개발 라운드



*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세스

신발,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든다

: 신발 개발의 A to Z

380mm, 부기 신발 제작 도전기



Q '부기' 신발 제작 프로젝트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부산시 공식 캐릭터인 부산갈매기, '부기'의 신발을 직접 만드는 프로젝트였다. 착화가 예정되어 있어, 실제 신발 제작 과정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Q 프로젝트 팀의 목표는 무엇이었나

실제 신발 개발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프로젝트 첫 단계부터 TD(Tech Developer), PE(Pattern Engineer), TE(Tooling Engineer), CE(Chemical Engineer), 그리고 워크샵 담당자까지, 모든 전문가들이 첫 단계부터 함께 머리를 맞댔다. 380mm라는 이례적인 크기의 신발 제작! 마치 인형 탈에 가까운 신발에 처음에는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곧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시작되었다.

“발이 편안하면서도 부기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창신의 43년의 노하우를 담은 신발을 만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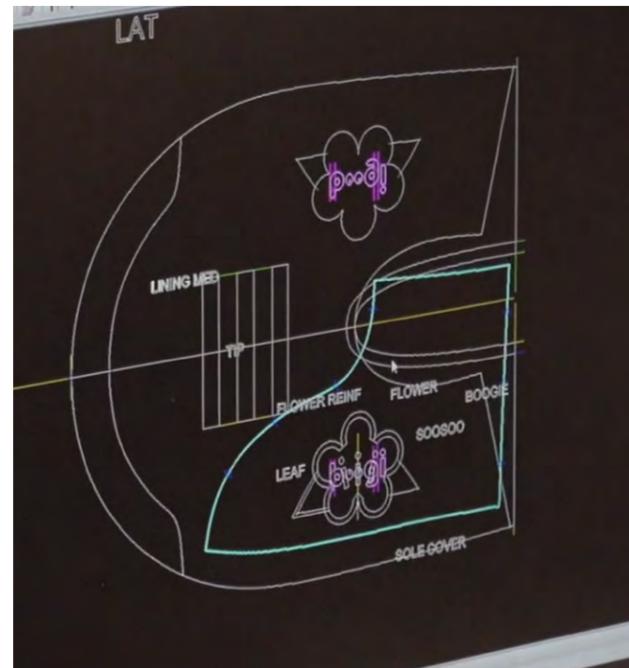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선정하는 것부터 창-갑피를 연결하는 프로세스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Q 패턴 제작을 위해 부기 신발을 분해했다고

보통 신발을 개발할 땐 라스트 정보와 기존 다른 모델들의 패턴 파일들을 참고해서 갑피 패턴을 제작한다. 그런데 '부기' 신발은 완전히 상황이 달랐다. 신발의 모양과 구조 등 전체적인 외형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라스트 대신 커다란 폼(Foam)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참고할 데이터가 하나도 없었다.

부기 신발의 갑피 패턴을 담당한 PE 정수진 사원은 “처음엔 솔직히 좀 막막했다.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는데, 막상 작업하려니 자료도 없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다”라고 말했다.

그래도, 여기서 포기하면 창신인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정 사원은 **그동안 쌓아온 신발 개발 경험을 총동원해서, 샘플을 직접 분해하고 치수를 재는 방법을 택했다.**



패턴을 정교하게 조정할 때 쓰는 방법인데, 부기 신발을 하나하나 뜯어서 세밀하게 치수를 측정했다. 물론 한 번에 완벽한 패턴이 나오진 않았다. 여러 번 수정하고 종이 패턴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전체적인 틀을 잡아갔다.

정수진 사원은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었다. 신발 안쪽에 '부기(boogi)' 로고를 새롭게 추가해 창신만의 독창적인 부기 신발 패턴을 완성했다”라고 덧붙였다.

Q 아웃솔 제작을 위해 어떤 부분을 연구했나

틀링팀은 보통 3D 모델링으로 바텀 모양을 설계하고,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금형 제작을 책임진다. 그런데 부기 신발 사이즈는 380mm!! 일반 신발은 최대 300mm까지 만드는데, 부기 신발은 훨씬 크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는 제작이 어려웠다.

TE 하성준 사원은 “사이즈도 크고, 뼈대가 폼이라서 금형으로 찍어내는 건 불가능했다. 그래서 **기존 자재에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다**”라며 당시 어려움을 떠올렸다.

“정확한 사이즈를 맞추려고 3D 스캐닝도 병행했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울퉁불퉁한 고무 소재를 사용했다. 사이즈에 맞게 고무를 두 겹으로 붙였고, 걸을 때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선배들께 조언을 구해서, 고무가 겹쳐지는 부분을 발이 잘 구부러지는 위치에 맞춰 설계했다. 심플하면서 강렬한 느낌을 주기 위해 투명한 고무를 사용해 부기 캐릭터를 아웃솔에 나열했다”

그는 “혼자였다면 어려웠겠지만, **팀원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작업한 덕분에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라며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Q 품을 모두 수작업으로 커팅했다고

이번 제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작업은 뼈대인 품을 깎는 작업, 폼 커팅이었다. 데이터라고는 높이, 너비 같은 기본적인 수치뿐이었기 때문에, 모든 품을 수작업으로 깎아야 했다.

워크샵의 김재원 이사는 “신발 개발과 관련해 다방면의 경험이 많아서 이 작업을 맡게 됐다. 특히 신발 외형을 만들고 안쪽을 파내는 작업이 가장 까다로웠다. 직접 신어 보며 착화감을 확인하고, 조금씩 깊이를 조절하며 완성해 나갔다. 그동안 쌓은 경험이 여기에 여기서 빛을 발했다”라고 웃음을 지었다.

마지막 접착 단계에서도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다. 갑피와 바텀을 완벽히 맞추기 위해 게이지로 위치를 세밀하게 확인했고, 완성된 신발은 직접 착용하면서 최종 점검까지 꼼꼼히 진행했다.

Q 부기 신발 제작 소감

팀원들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만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PE 정수진 사원은 “신발 개발은 겉으로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어려운 분야이다. 하지만 한번 제대로 배우면, 부기 신발처럼 다양한 상황에 활용이 가능하고,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팀원들은 부기가 이 신발을 잘 신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언제든 A/S 해줄게!”라며 창신이 만든 유일무이한 부기 신발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메이킹 포토 CHANGSHIN X BOOGI

지난 10월 28일 '체험! 부기의 현장' 창신편 촬영 현장 스케치



창신의 신발에 대한 진심이 잘 전달될 것 같아 뿌듯합니다
TD 김기민 사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촬영했습니다. 커피 한잔할래요?
TD 최재원 과장



부기 다리가 짧아서...재봉이 쉽지 않았지만,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자랑했어요
재봉 김민주 사원



I love 창신!!
마스코트 부기로 바빠조(鳥)라!!
신발 만들어 줘서 감사! 기록 ~

창신의 스타들을 만나보고 싶다면?
Click!



CEO 두줄 노트

사장님의 생각과 통찰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칼럼으로, 격월지로 전후 두 달 간의 사장님의 인사이트를 두 문장, 두 문단 형식으로 전합니다



Business Agility Matters

Business Agility는 조직의 장기 목표와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고객의 요구와 환경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상황 별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조직과 자산, 투자, 비용 등을 체계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기 운영전략이다.**

2025년은 'Agility' 운영전략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긍정의 자세로, 상황은 엄중하게 판단하며, 시나리오 플래닝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25년, 웃는 얼굴로 비장하게 시작하자. Yes, We Can Make it Work.

특투와 함께 한 1년

Talk to each other.
Exchange ideas.
Stay connected.



Manufuturing

창신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Manufacturing + Future

Manufacturing | MX Designer

MX Designer _ Manufacturing eXperience Designer

MX Designer들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부서 및 팀 소개를 통해 일상 속 성장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신의 제조 혁신을 이끄는, 생산기술본부

설비 표준화와 자동화 시스템으로
신발 제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작업자의 역량과 컨디션에 좌우되지 않는 균일한 품질,
표준화와 자동화로 해답을 찾는다”



생산기술본부 / 생산자동화팀 **박종찬 과장 인터뷰**

신발 제조 공정에 새로운 자동화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생산자동화팀 박종찬 과장. 첨단 기술을 생산 공정에 접목하여 창신의 제조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자 혁신적인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그의 열정과 미래를 향한 도전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Q 생산자동화팀은 어떤 업무를 하나

생산자동화팀은 자동화 시스템 설계 및 개발, 기술 지원, 신기술 발굴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조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자동화 가능한 영역을 발굴하고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제조 방식을 연구하며,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실용성을 검증하고 제조 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지속 가능한 제조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자동화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나

신발 제조 공정은 다품종 소량 생산, 잦은 모델 변경, 높은 수작업 의존도 등으로 인해 자동화 구현에 많은 도전 과제가 있다. 또한, 신발 산업에 특화된 자동화 기술 전문가 부족 역시 주요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Just do it' 정신으로,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을 통해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하고, 자동화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산업군의 기술 동향을 파악 및 분석하며, 사내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입사 초기, 신발 제조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던 시기에 진행했던 IoT 관련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당시 해외 공장 생산 라인에 데이터 수집 센서와 통신 장치를 적용하는 업무를 맡으며, 신발 제조 공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공정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앞으로도 생산자동화팀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창신의 생산 자동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것”

Q 지난 11월 평타이로 벤치마킹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간단한 소회라면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대만에 위치한 평타이 개발 센터와 Automation Center를 방문하며, 혁신적인 자동화 시스템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 현장에서 그들이 보여준 기술은 단순히 장비 소개에 그치지 않았다. 개발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과 해결 방안, 테스트 방식과 그 결과까지도 아낌없이 공유해 주었는데, 이는 엔지니어로서 정말 인상 깊었다. **기술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도전과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나누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개방적인 태도는 매우 감동적이었다.**

이번 벤치마킹 출장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었고, **창신의 자동화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Q 다른 부서와의 협업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다른 부서와의 협업이 잦은 업무 특성상, 명확한 소통과 상호 신뢰는 필수적이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전문성을 인정할 때 진정한 협업이 이루어지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Q 마지막으로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생산자동화팀은 다양한 배경과 전문 분야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협업하는 팀이다.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고 협력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 **앞으로도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창신의 생산 자동화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뤄 나가고 싶다.**



생산기술본부 / 설비혁신팀 **임소정 대리 인터뷰**

창신의 생산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비 표준화를 선도하는 설비혁신팀의 핵심 멤버, 임소정 대리. 본부 내 유일한 여성 엔지니어로서 설비 표준화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으로 창신의 설비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설비혁신팀은 어떤 업무를 하나

창신의 모든 생산 설비가 일관된 기준과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설비 표준화' 업무를 추진한다. 해외 법인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설비를 선정하고 구매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며, 최적의 설비를 선정해 전사적으로 표준화를 실현하고 있다. 신규 업체 발굴부터 설비 최적화, 공정 기술 표준화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창신의 설비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작년 12월 진행했던 '설비 표준화 규정' 제정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설비 표준화는 유관 부서와 해외 법인의 협조가 필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규정 통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라 큰 책임감을 느꼈고, 이를 통해 창신의 설비 선정 및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보람이 컸다.



설비 표준화 규정

Q 앞으로의 계획

2025년에는 설비의 구매, 운영, 유지보수,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설비 자산 관리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사적으로 일관된 설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해외 법인 간의 차이를 줄여 창신의 설비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설비혁신팀은 그룹 차원에서 생산 설비의 표준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업무의 성과가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창신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설비혁신팀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설비혁신팀에서 설비 표준화 진행한 컴퓨터 재봉기



VJ에서 사용 중인 OK(Oscillating Knife Cutting)

**“끊임없이 노력하며 매일 성장해,
창신의 품질과 생산 안정성을 책임지겠습니다”**

CSG News Pick

해시태그로 보는 창신 #창_뉴_픽

창신의 주요 변화와 뉴스를 해시태그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Development

2024 핵심 모델¹⁾

1) 2024년 11월 기준 데이터
2) 2024년 창신 개발 모델 (SU24~SP25)

Key Model

창신인이라면 알아야 할 창신 개발 Key Model을 소개합니다

ALPHAFLY 3

#RUNNING



세계 신기록을
만들어낸 러닝화

2023 시카고 마라톤에서 켈빈 키프텀 선수가, 2024 시카고 마라톤에서 체폰게티 선수가 세계 신 기록을 경신하는 순간 함께한 모델. 초경량 미드솔 소재와 탄소 섬유 플레이트를 적용하여 가벼우면서도 폭발적인 추진력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술력이 집약된 러닝화이다.

AIR MAX MUSE

#LIFESTYLE



본사·VJ 공동 개발,
에어 맥스 라인의 W's 신제품

본사와 VJ가 공동 개발한 W's 제품으로, 짧은 개발 기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품질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출시 전부터 고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메탈릭 실버 컬러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은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춰 고감도 스타일링을 즐기는 여성 고객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오사카 'Four-Eyed' 팝업 스토어에서 4일 만에 완판을 기록하며 그 인기를 입증한 바 있다.

Big Volume Top 5²⁾

2024년 한 해 동안, 창신 개발 모델 중 높은 생산 수량을 차지한 Big Volume Top 5를 소개합니다



AIR JORDAN 1
9.2M



P-6000
4.7M



AIR MAX 90
3.7M



FREE METCON 6
3.1M



ZOOMX INVINCIBLE RUN FK 3
1.8M

CSG News Pick

해시태그로 보는 창신 #창_뉴_픽

창신의 주요 변화와 뉴스를 해시태그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WoW

창신, 새로운 일하는 방식 "THE TRACK" 선포

창신은 10월 24일, 새로운 일하는 방식 "THE TRACK"을 선포했다. 홀원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창신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본사 및 계열사, 해외법인 임직원들은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함께했다. 행사는 "THE TRACK" 소개 영상 상영, CEO 기념사, 임직원 선언,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공식 티셔츠를 착용하고, 창신답게 일하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THE TRACK"에는 육상 트랙 경기처럼, 모든 임직원이 정해진 규칙과 방식을 준수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창신만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또한, 창신의 Brand Essence이자 Vision 2028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인 "The AceMaker"를 반영해, 내가 먼저 에이스가 되고, 서로를 에이스로 만들어주는 문화를 지향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 일하는 방식은 지난 1년간 전사 임직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축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창신은 "THE TRACK"을 시작으로 전통 제조업의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직원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0월 24일에 열린 일하는 방식 선포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THE TRACK CSG Way of Working

- 01 목표를 설정할 땐, **목표는 명확하게! 계획은 자세하게!**
- 02 근거를 제시할 땐, **추측보다 분석! 신념보다 데이터!**
- 03 의사 결정할 땐, **눈치 말고 가치를 봅니다.**
- 04 회의 할 땐, **안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 05 변화를 만들고 싶을 땐, **1mm의 차이가 1Million의 격차를 만듭니다.**
- 06 함께 일해야 할 땐, **시작은 내가! 끝은 우리가!**
- 07 피드백 할 땐, **칭찬은 떠들썩하게! 피드백은 정확하게!**
- 08 문제에 부딪혔을 땐, **길이 없다는 이유로 멈추지 않습니다.**
- 09 회고할 땐, **일을 끝낸 손엔 [배울 점]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10 성장을 확인할 땐, **성공을 위한 실패는 아름다워요.**

CSG News Pick

해시태그로 보는 창신 #창_뉴_픽

창신의 주요 변화와 뉴스를 해시태그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C2.0

위영량 CDO '이노베이션 CIO 수상'...디지털 전환 선도 기업으로 인정

창신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있는 위영량 부사장 (CDO)이 지난 12월 10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년 CIO(최고정보책임자)의 밤 및 올해의 CIO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CIO상, Innovation 부문'을 수상했다. 전자신문과 CIO 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이 상은 정보화 발전과 디지털 혁신에 기여한 최고정보책임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있는 자리이다.

창신은 C2.0 사업본부 출범 이후,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기반으로 실시간 경영 관리 시스템, AI 기반 생산성 향상 솔루션, LLM(거대언어모델) 품질 챗봇 등을 도입하며 디지털 혁신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왔다. 이러한 노력은 창신이 팬데믹 속에서도 성장과 변화를 이어나온 원동력이 되었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다.



또한, 포항공과대학교와의 산학 협력을 통해 3년간 100명 이상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하며, 데이터 중심 기업 문화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위영량 부사장은 "이 상은 창신 임직원 모두의 열정과 노력의 결실"이라며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신발 제조 산업의 디지털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창신은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글로벌 제조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신 문서기반 AI Chat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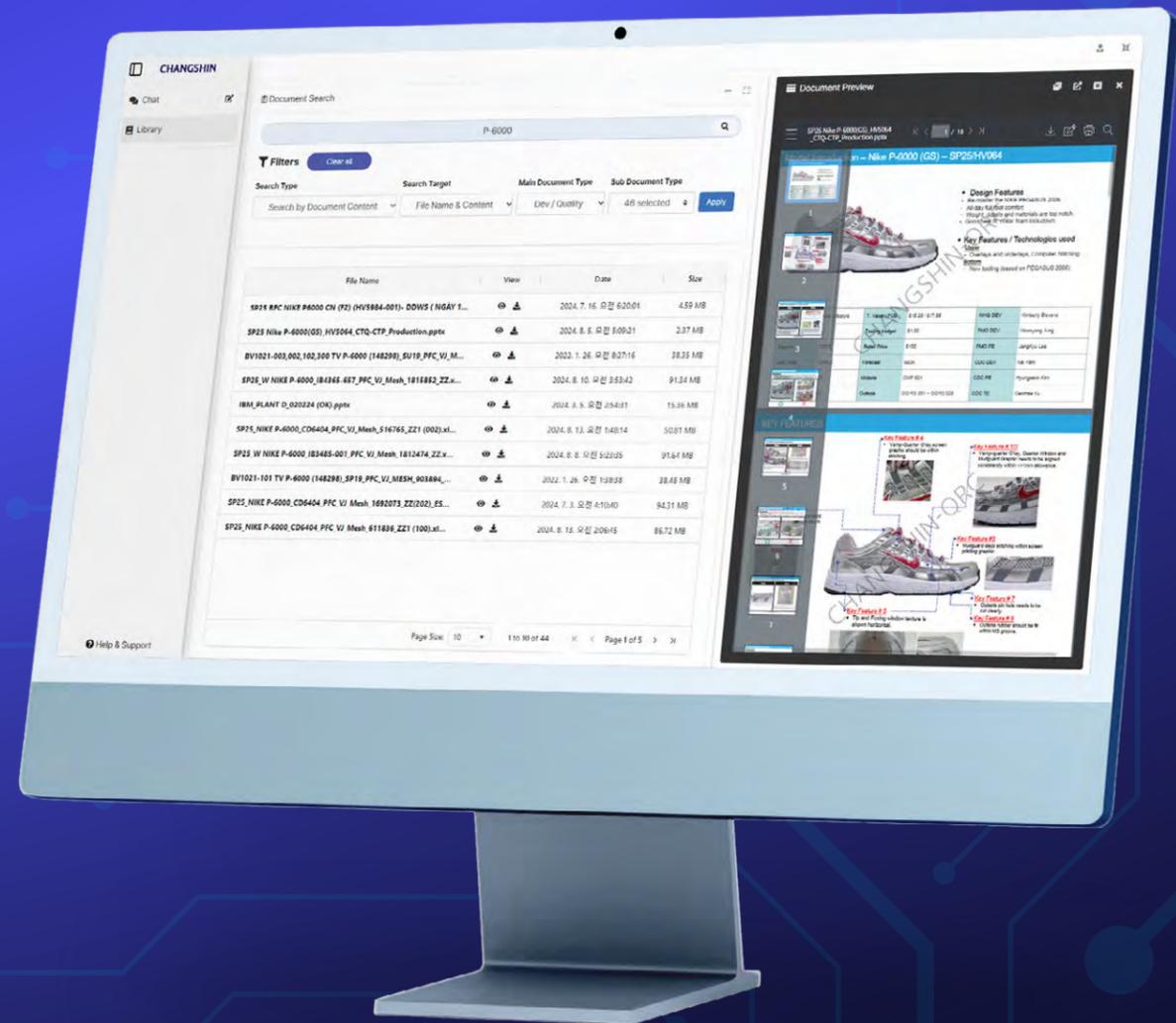
QRC Go-Live Open

12월 3일, 창신 AI 챗봇 서비스 오픈

- GPT-4o & Qwen-2.5 최신 LLM을 활용한 질의응답
- 창신의 개발·품질 및 인사·총무 문서 55종 반영
- 대화 기억 및 응답 문서수 조정 등 사용자 맞춤형 기능 제공

- Docs** 창신 문서기반 검색 대화
- Discover** 일반지식 검색 대화
- Experts** 창신 엔지니어 전문가 검색
- Library** 문서 검색 서비스

QRC 접속 링크 qrcbot.changshininc.com





Notice

광고 페이지

디지털 사내보 TALK²는 창신인들의 다양한 소식을 소개합니다.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이라면 어떤 내용이든 게재 가능합니다.

- 문의
Communications팀

TALK²

창신 봉사단 나눔

17년 동안 부산 곳곳에 온기를 나누어 온 봉사 동호회 '나눔'이, 내년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따뜻한 걸음을 이어갑니다. 함께 나눔을 실천할 동호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활동 내용

- 1분기: 지역 주민 연탄배달
- 2분기: 지역 장애인 동반 문화 활동
- 3분기: 회사 주변 지역 정화 활동
- 4분기: 김장 활동

활동 시간

토요일(봉사 활동 별 시간 상이)

신청 방법

운영진에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 이호신 차장 (010-8938-1146)
- 김은정 사원 (010-9303-8491)
- 조성은 과장 (010-2648-1346)

회비

매월 5,000원



Lean 단상 37호

이립 불혹

글 | LEAN그룹 박성영 부장



생성형 AI 'Copilot'으로 제작한 이미지

논어 위정편에는 '삼십이립三十而立, 사십이불혹四十而不惑'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흔히 삼십 대를 '이립'의 나이로 부르고, 사십 대를 '불혹'의 나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다.

그러나 단순히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삼사십 대를 이립과 불혹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본래 의미를 살펴보면, '삼십의 나이가 되어서는 바로 설 수 있었고, 사십의 나이가 되어서는 미혹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끊임없는 자기성찰의 노력을 해야 이를 수 있는 경지인 것이다.

이립의 '바로 서다'는 것은, 지금의 내 모습을 바탕으로 앞으로 펼쳐질 내 인생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올바르게 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무가 자라는 과정을 예로 들어보면, 나무는 두 방향으로 성장을 한다. 땅 아래에서는 뿌리가, 땅 위로는 가지와 잎이 그것이다. 나무가 더 높고 크게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는 더 커지고 강해져서 땅을 굳게 잡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땅 아래 뿌리가 지금의 내 모습과 현실을 상징한다면, 땅 위로 자라는 나무는 미래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뿌리 약한 나무에게 풍성한 가지와 잎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듯이, 확고한 현실 감각이 없다면 올바른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요약하여, 이립의 의미는 '지금 내 모습을 올바로 인식하는 가장 탁월한 현실주의자인 동시에, 미래의 내 모습을 그려나가는 가장 낙관적인 이상주의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는 동시에, 미래의 모습을 낙관적으로 그려나가는 것이다.

불혹에서 '혹惑'이라는 글자는 '혹시 혹혹'자와 '마음 심心'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신의 마음을 의심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혹의 상태는, 우리가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이립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자라면서 자랄수록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고민도 많아지면서, 미래를 향한 스스로의 결정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온갖 시련이 나에게 닥치는 이유인즉, 자신이 예전의 모습보다 훌쩍 더 커졌기 때문이다.

확고한 현실 감각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는 수많은 오해와 질시를 받거나, 수많은 고난과 역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삼십 대에 세운 원칙과 그에 따른 삶에 대한 믿음이 스스로 흔들릴 수도 있다. '지금 내가 혹시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런 시련은 우리가 그만큼 평범한 다른 사람이 넘볼 수 없는 높이와 크기로 자라났다는 방증이요, 사십 대 나이에는 불혹의 마음으로 삼십 대에 세운 꿈과 이상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직 그럴 때만 우리는 삶에 뿌리를 내리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인생에서 설익지도 농익지도 않는 나이, 삼사십 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삼사십 대는 갖가지 갈등과 피로를 양어깨에 가득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공자가 이야기한 이립과 불혹의 경지는 너무도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나의 미래를 그려보고 있노라면 삼사십 대의 기간 동안 치열한 자기성찰을 통해 그려진 밑그림 없이는, 그 이후의 삶도 백지처럼 막막할 뿐이다. '이립'과 '불혹'의 관점에서, 자신의 진정한 인생 나이는 얼마일지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일이다.

12월 10일, 창신 그룹이 만 43세가 되었다. 이립을 거쳐 막 불혹을 지난 나이이다.

The AceMaker가 되겠다는 꿈과 함께, 현재 모습을 바로 알고 개선하는 모습이 '이립'이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꿈을 의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불혹'인 것이다.

Lean을 통해 밑바탕을 튼튼하게 하고, 그 위에 Digital, AI 등을 세우며 '초격차'를 실현하겠다는 혁신의 방향이 바로 그것이다.

Trend Catcher

[News Clipping | Vol.73]

고객사 및 신발 산업 트렌드와 뉴스 소식을 알아봅니다

As of November 2024

작성 | 경영기획팀

*타이틀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신규 모델 'VOMERO 18' 공개 ZOOM-X와 REACT-X 결합

- 2025년 2월 27일, 러닝화 'VOMERO 18' 출시 예정
- 대표 FOAM 기술인, ZOOM-X와 REACT-X를 결합
- 역대 VOMERO 중 가장 높은 FOAM 사용, 이전 모델 대비 6mm 증가한 46mm의 쿠셔닝 적용
- 신발 길이에 맞춰 설계된 ZOOM-X FOAM이 부드러운 착화감을 제공, 발 앞뒤에 위치한 REACT-X FOAM은 뛰어난 에너지 리턴으로 효율적인 러닝을 도움
- 내구성이 뛰어난 고무로 제작된 아웃솔과, 신축성이 우수한 엔지니어드 메시 소재의 갑피가 특징

동아일보



3D 프린팅 운동화 'AIR MAX 1000' 공개

- NIKE, 3D 프린팅 신발 전문 기업 '젤러펠트(Zellerfeld)'와 협력해 제작한 'AIR MAX 1000' 공개
- 에어쿠션 제외한 모든 부분 3D 프린터로 제작, 기존 신발 제조 기술로 구현 어려웠던 독특한 윤곽 디자인 구현
- 다양한 밀도와 질감의 층을 혼합해 단단하고 지지력이 뛰어난 아웃솔과 신발끈 없이도 신고 벗기 편리하도록 유연하고 편안하게 설계된 갑피가 특징
- 스트리트 패션 컨퍼런스 콤플렉스콘(ComplexCon)*에서 (11/17) 선공개, 공식 출시 계획 및 가격은 미정

*콤플렉스콘(ComplexCon): 미국 패션 잡지 '콤플렉스(Complex Magazine)'가 주최, 매년 100여 개의 패션 브랜드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트리트 패션 컨퍼런스



Trend Catcher

[News Clipping | Vol.73]

고객사 및 신발 산업 트렌드와 뉴스 소식을 알아봅니다

As of November 2024

작성 | 경영기획팀

*타이틀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경영사 / 산업

ADIDAS, 복고 열풍에 힘입어 영업이익 12억 유로 전망

- 2024년 영업이익, 이전 예측치 대비 20% 상승한 12억 유로(약 1조 7,75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삼바, 스페지알, 캠퍼스 등 복고풍 클래식 스니커즈 모델 수요 증가로 지난해 부진했던 실적 회복, 주가도 30% 상승
-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애널리스트, 푸남 고얌(Poonam Goyal) “라이프스타일 슈즈의 혁신과 강세가 ADIDAS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평가

글로벌이코노믹

NEW BALANCE, 올해 국내 매출 1조 원 달성 전망

- NEW BALANCE가 올해 국내 시장에서 1조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 이는 국내 패션 기업 중 다섯 번째로 달성하는 기록, 이랜드 그룹이 2008년 NEW BALANCE 라이선스권을 확보한 이후 16년 만의 성과
- 20년간의 신발 트렌드 수집 및 분석하여 신발 시장의 유행을 예측하고, 기능성 러닝화 ‘530’ 시리즈 재출시 요청 등 본사와의 긴밀한 협업이 주요



어패럴뉴스

ASICS, 매출 6조 원 돌파...2025년 러닝화에 집중 예고

- 2024년 매출액 6,800억 엔(약 6조 930억 원)... 사상 최고치 경신 전망
- 불가리아 디자이너 키코 코스타디노브(Kiko Kostadinov)와의 협업으로 디자인을 혁신하면서, ‘아저씨 신발’ 이미지를 탈피, MZ세대의 패션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이 매출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
- 또한, 과거 제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리미엄 브랜드 ‘ONITSUKA TIGER’의 인기 역시 매출 증가에 기여
- CEO 히로타 야스히토(Hirota Yasuhito) “2025년에는 수익성 낮은 야구용품과 체육복 사업에서 철수, 부가가치가 높은 러닝화 사업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힘

일요신문

TALK²

Talk to each other. Exchange ideas. Stay connected.



본지는 창신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자료를 허락 없이 무단 복사,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